

세르비아 고용과 GDP의 상관관계

Mihajlo Djukic Belgrade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Researcher

주요내용

- ▶ 세르비아 경제의 실업률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감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. 세르비아 경제에 재정 건전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, 근래 비교적 완만했던 GDP 성장에 이어 실업률 급감이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.
- ▶ 2015~2016년 나타났던 가시적이고 급격한 실업률 감소는 실질적 경제 성장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지표의 측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.
- ▶ 정책적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음. 세르비아 경제에 있어 실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임. 노동시장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방법론적인 변화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심각한 구조적 및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조율된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1. 이슈 현황

- ▶ 지난 2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은 대중에게 실업률 감소에 성공했다고 알려왔으나, 이 주장은 경제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움.
- 경제학 이론에서는 산출량과 실업(失業)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함. 산출량이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들고,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 중설(衆說)임.
 - 1960년대에 제기된 오쿤의 법칙(Okun's law)에서 설명하는 것처럼, 한 경제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야 함.
 - 산출량 증가가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일관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간 이견이 있지만, 이 두 가지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임.
 - 실업률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 경제성장의 속도임.

- 유럽경제통화동맹(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, EMU)의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행한 실증적 연구 결과, 경제위기 발생 이전 기간 동안 GDP 성장과 고용 사이에 음(-)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이 증명되었음. 이는 오쿤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.
 -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, 산출량이 23% 증가한 것에 이어 고용이 13%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.
 -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2008년의 경제위기 촉발로 인해 깨어졌으나, 위기 이후에 다시 똑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산출량 회복이 고용의 실질적 회복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.
- 실업이 1% 증가할 경우 GDP가 약 0.5% 감소한다는 연구사례가 있음.
 - 상기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.
 - 단, 각국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라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음.
- 산출량 증가와 실업률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실증적 연구를 과신할 수는 없음.
 - 지금까지 시행된 실증적 연구가 모두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일 뿐 아니라(2012년 이후) 연구에 사용한 실측자료의 수가 적기 때문임.
 - 더불어, GDP 성장이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및 노동 시장 참가에 관련된 추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세르비아 경제의 실업률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감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.
 - 연구자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조사(Labour Market Survey)를 통해 발표된 노동시장 데이터에 주로 의존함.
 - 세르비아 경제에 재정 건전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, 근래 비교적 완만했던 GDP 성장에 뒤이어 최근 발표된 수준의 실업률 급감이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.

2. 원인과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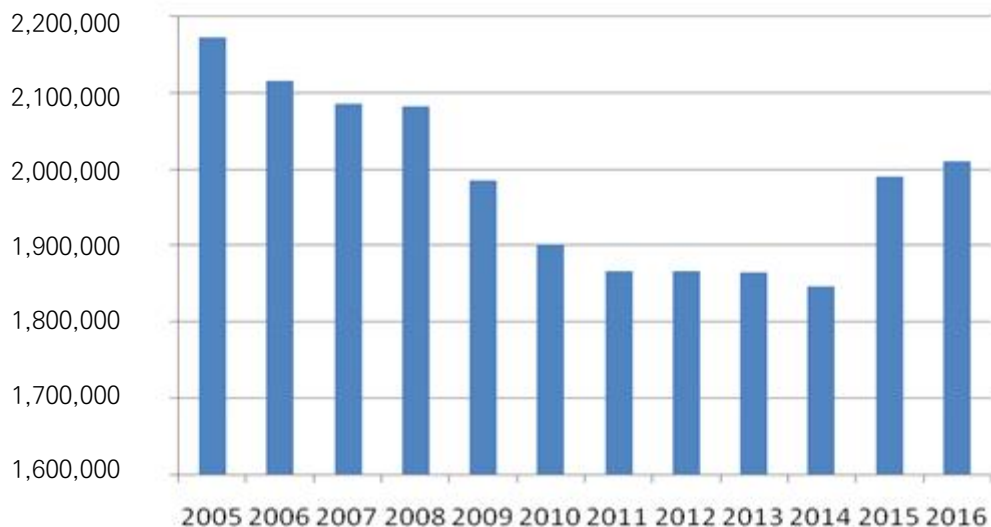
▶ 2015~2016년 나타났던 실업률 감소는 경제 성장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지표의 측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임.

-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달리, 2001~2008년 사이 세르비아의 경제성장은 실업률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음.
 - 더불어 2005~2008년 사이 상당한 성장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함.

- 이것은 세르비아가 위기 이전 높은 자본유입에 기반해 인적 자본이 필요 없는 “고용 없는 성장” 증이었음을 의미함.
 - 이러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는 생산성 증가가 있음.
- 또한 변혁적 개혁이 실시되고 민간 분야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며, 민영화가 나타난 분야에 일자리 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남.
-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인해 과거 공공분야의 고용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.
 - 고용률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의 여파로 계속해서 하락함.
 - 이런 감소세가 가시적으로 반전된 것은 2014년 이후임.

표 1. 2005-2016년 취업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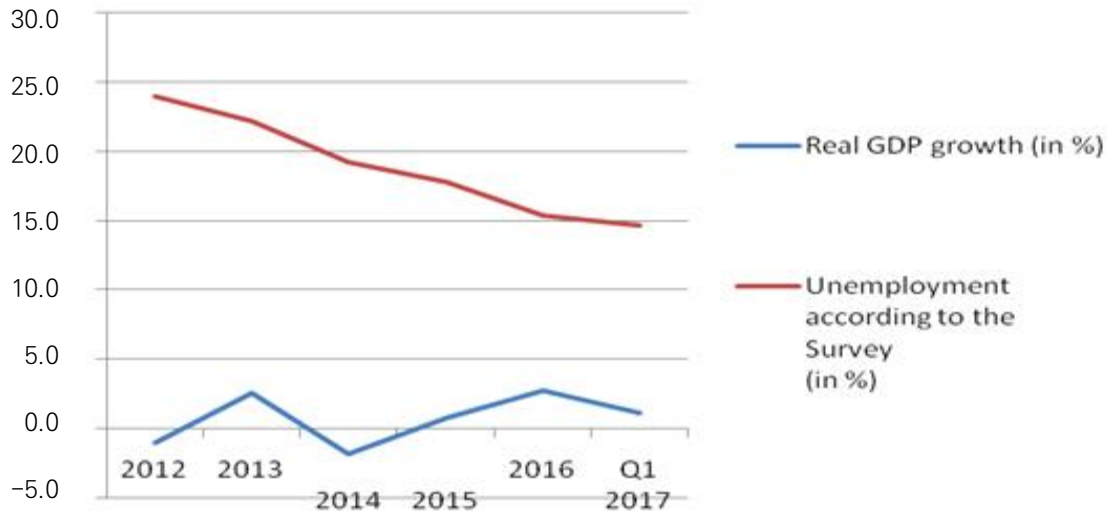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자료원 : 세르비아 통계청

표 2. 2012~2017년 실질 GDP 성장률 및 실업률

(단위: %)



자료원 : 세르비아 국립은행

- 상기 언급한 내용에 더해, 위기 이전 및 위기 기간 동안에 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구조적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.
 - 이러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실업률 증가에 비해서 가용한 일자리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.
- 한편, 특정 인구집단의 장기실업률 증가와 높은 청년실업률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호라고 할 수 있음.
-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면, 2015~2016년 나타났던 가시적이고 급격한 실업률 감소는 실질적 경제 성장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지표의 측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.
 - 실업률 급감에 관하여, 과연 실제로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 - 만약 실업률이 실제로 하락한 것이라면, 우리는 GDP 1% 상승이 수 배 가량의 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학 이론 및 상식에 배치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임.

3. 전망과 시사점

➤ 정책적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음.

- 세르비아 경제에 있어 실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임.

- 노동시장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방법론적인 변화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.
- 임시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둔갑시킴으로써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등의 측정 방법상 변화를 통한 실업률 하락을 긍정적인 결과인 것으로 전달하는 정책입안자들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.

□ 심각한 구조적 및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조율된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- 또 다른 정책적 도전과제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임. 실업률 저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객관적·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.
- 이들 정책을 수정할 시, 장기적 교육전략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- 이것이 높은 실업률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해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음.

EMERiCs

참고문헌

- Andrei, Dumitrescu Bogdan. 2014. "The Cor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Real GDP Growth. A Study Case on Romania." : 317-22. <https://core.ac.uk/download/pdf/6304085.pdf>.
- Ball, Laurence M. 2013.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kun'S Law: Fit at Fifty?
- European Central Bank. 2016. The Employment-GDP Relationship since the Crisis.
- Levine, Linda. 2013.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conomic Growth and the Unemployment Rate.
- Ognjenovic, Kosovka. 2015. Stanje I Pravci Rešavanja Problema Strukturne Nezaposlenosti U Srbiji. http://ebooks.ien.bg.ac.rs/42/1/ko_2015_01.pdf.
- Petrovic, Pavle, Danko Brčerevic, and Slobodan Minic. 2016. "Privredni Oporavak, Zaposlenost I Fiskalna Konsolidacija - Pouke Iz 2015. I Izgledi Za 2016. I 2017. Godinu." Ekonomika preduzeća 64(1-2): 53-73.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